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사야 12:1-6, 스바냐 3:17)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이사야서 12 장에는 ‘**감사 찬송**’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1-6 절의 아주 짧은 찬양시 가운데 ‘**감사**’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이사야 12:1a, 4a)

이 감사의 찬양시는 ‘**그 날이 오면**’이라는 말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앞서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직 오지 않은, 끝나지 않은 사건을 향해 감사 찬송이 말하는, ‘**그 날**’은 과연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시작되어 11 장 전까지 계속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가 이사야서를 통해 말해집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이사야서에서는 드디어 12 장의 1 절에서 새로운 희망을 말합니다. 바로 ‘**그 날**’에 대한 작은 불꽃 같은 희망입니다.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남은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이사야 11:11)

자유도, 나라도 다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을 지탱해 준 힘이 바로 ‘**그 날이 오면**’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포로신세 이지만, 주의 구원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 날이 오면, 앗수르의 손아귀에서 ‘제 2의 출애굽’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아마도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날이 오면**’을 학수고대 했을 것입니다. 암울한 포로생활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또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11 장부터 시작된 희망은 12 장의 감사 찬송을 통해 극명하게 들어납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이사야서 12 장 감사찬송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 12:2b)

12 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작은 소망에 대한 감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과부하가 걸리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내 능력,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요즘 말하는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사람 콤플렉스' good boy syndrome 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거절 당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을 통해 현대사회는 집요하게 우리 능력의 한계를 테스트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스바냐 3:17a)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은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즉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능자**'입니다. 개역성경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하나님을 찬양 합니다. 이 '전능자'의 원어는 바로 '**전쟁의 용사**' 라는 의미입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 (신명기 4:34) 로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5 장 '**모세의 노래**'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수셨습니다.

(출애굽기 15:3, 6b)

우리의 삶은 사실 강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내 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긴 삶을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신다'는 멋진 고백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노래는 슬픔과 이별,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노래에 끌려서, 가사대로 살게 됩니다. 슬픔이 밀려오고, 우울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찬송 부르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 것이다. (이사야서 12:3)

본문의 감사 찬양시 중에 우물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딱한 광야 길을 걷는 중에 '**브엘**' 우물 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라. 내가 물을 주마.” 이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 합니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민수기 21:16-17)

세상의 우물이란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해야만 우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우물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저 길어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샘물은 빗물이 마르면, 샘물도 바싹 말라 버리지만 천국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 약속 위에 솟구쳐 오르는 샘물과 같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구원의 고백입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노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 때마다 벽찬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구원이 되신 하나님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God – yes God! – is my strength and song, **best of all, my salvation!**

(Isaiah 12:2b, the Message)

하나님 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노래입니다, 구원입니다’ 이런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스바냐서 3:17b)

스바냐서 말씀 속에 기쁨을 참지 못하고, 기뻐서 춤 추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번역했지만, 새번역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뻐 반겨 맞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같은 세상, 거친 인생 들판을 걸을 때 새 힘으로 새 노래와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서 12:2)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회자료]

- 찬 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104 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 대표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 말씀읽기 이사야 12:1-6, 스바냐 3:17 절을 읽습니다.
- 말씀묵상 본문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0 분)
- 말씀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 말씀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 이내)
1.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1).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 보십시오.
 2.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어 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3.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4. 사랑하는 속회식구들과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찬 송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321 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 주기도문